

# 2015년 수정 경제전망

## 〈목 차〉

- I. 최근 국내경제 동향
- II. 대내외 경제여건
- III. 2015년 국내경제 전망
- IV.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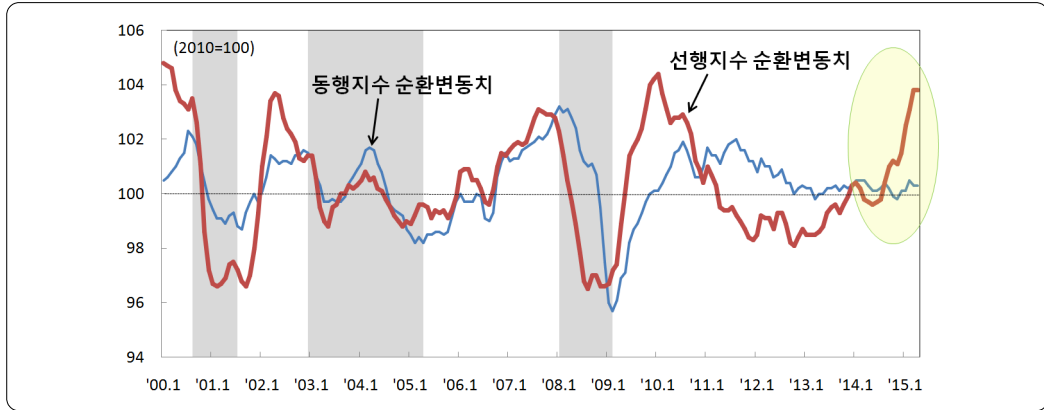
## I 최근 국내경제 동향

### ▶ 최근 국내 경기는 혼조세 지속

-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'14년 하락세 이후 등락 중
  -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'13년 3월 저점(99.8)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'14년 4월부터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하락 후 큰 반등 없이 기준치(100)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 중
    - ('13.3월)99.8→('14.3월)100.5→('14.11월)99.8→('15.4월)100.3
-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'14년 6월부터 상승세 지속
  -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'13년 4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'14년 2월 하락 전환하였으나 6월부터 반등 후 8월부터 9개월 연속 기준치(100)를 상회하며 상승세
    - ('13.3월)98.5→('14.1월)100.4→('14.5월)99.6→('14.8월)100.4→('15.4월)103.8

\* 본고는 이현영 선임연구위원, 김대호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,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

경기종합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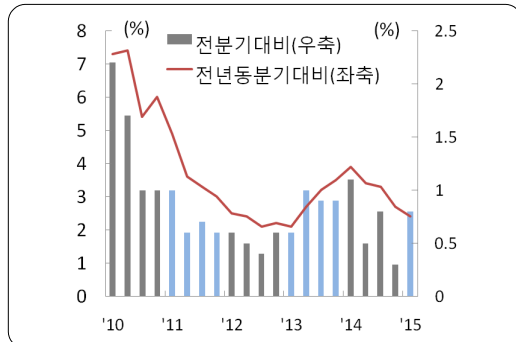


주 : 음영부분은 경기 수축기임  
 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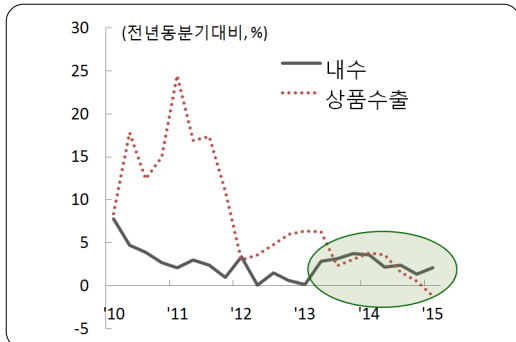
▶ 내수와 수출 모두 본격적인 회복 지연

- (경제성장) '13년 2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3% 내외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 및 수출의 회복속도는 제한적
  -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의 부진한 증가세 지속
  - 수출은 유가하락 및 미약한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따라 '14년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, 올해 1분기에는 1.2% 감소

GDP 증가율 추이



수출 및 내수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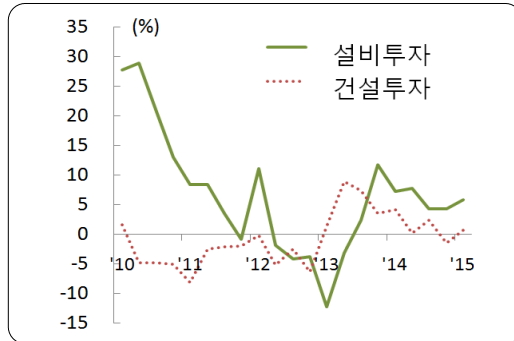


주 : 수출 및 내수증가율은 국민계정 기준  
 자료 : 한국은행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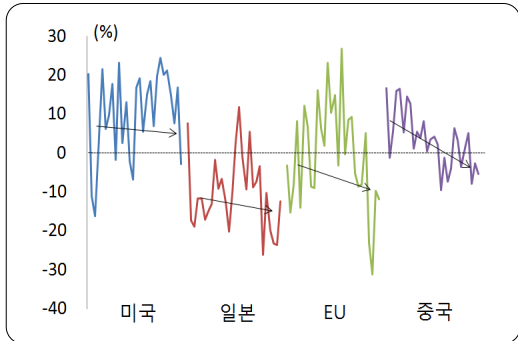
- **(내수)** 민간소비는 '14년 2분기 이후 부진 지속,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
  -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악화되었으며, 소비심리도 본격적인 회복은 지연
    - 민간소비(전년동기비,%) : ('14.1Q)2.6→(2Q)1.7→(3Q)1.5→(4Q)1.4→('15.1Q)1.5
    - 소비지출전망 : ('14.12)106→('15.1)107→(2)109→(3)106→(4)106→(5)107
  - 설비투자는 기계류, 운송장비 등의 투자확대로 '13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
  - 건설투자는 '13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'14년 4분기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택시장의 개선 등으로 올해 1분기 0.7% 증가 전환
- **(대외거래)** 유가하락, 주요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입 모두 감소세
  - 수출은 반도체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석유제품·가전제품은 '14년 하반기 이후, 자동차는 올해 1월 이후 지속적 감소세
    - 수출(%) : ('14.1Q)1.6→(2Q)3.2→(3Q)3.6→(4Q)0.9→('15.1~4)△4.3
    - 수입(%) : ('14.1Q)2.0→(2Q)3.3→(3Q)5.4→(4Q)△2.8→('15.1~4)△16.0
    - '14.3월~'15.3월 중 호조세를 보였던 대미 수출이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대중국 수출 감소폭도 확대
  - 수출단가 하락, 세계 교역증가율 둔화 등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경상수지는 '12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흑자

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



주 : 전년동분기대비  
자료 : 한국은행

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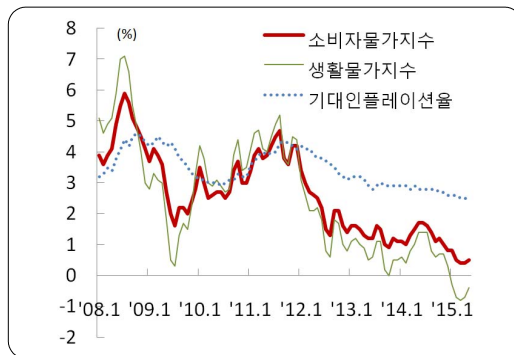


주 : 전년동월대비('13.1~'15.4)  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▶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는 반면, 고용지표는 다소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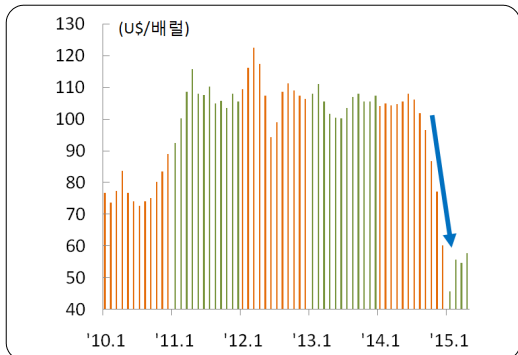
- (소비자물가)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1월 이후 0%대 지속
  - 농산물가격 안정 및 수입물가 하락 등도 저물가 추세에 기여
    - 농산물가격(전년동기비, %) : ('13)△1.0→('14)△10.0→('15.1Q)△2.8→(4)△1.4
    - 수입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13)△7.3→('14)△7.5→('15.1Q)△18.1→(4)△17.1
  -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저물가기조가 반영되어 '13년 9월부터 3% 미만 지속

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



주 : 전년동월대비  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국제유가(Dubai) 추이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- **(고용)**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, 구직 기대감 상승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
  - 보건·사회복지서비스 등 사업·개인·공공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도 확대
  - 청년실업률(15~29세)은 전체 실업률(4.1%)의 2.5배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부진

### 주요 고용지표 추이

(단위 : 만명, %)

	'12년	'13년	'14년	'14.1Q	'15.1Q
고용률	59.4	59.5	60.2	58.8	59.0
취업자 수 증감	43.7	38.6	53.3	72.9	35.4
제조업	1.4	7.9	14.6	12.3	13.9
보건·사회복지서비스	8.8	15.5	13.9	11.7	12.5
실업률	3.2	3.1	3.5	4.0	4.1
청년실업률(15~29세)	7.5	8.0	9.0	9.8	10.3

주 : 취업자 수 증감은 전년동기대비

자료 : 통계청

## II 대내외 경제여건

### ▶ 세계경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회복세 예상

- '15년 세계경제는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3%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
  -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성장세, 유로지역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개선이 예상되나, 중국 및 원자재 수출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하방리스크 상존
  - 미국경제는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기대
  - 유로지역의 경우 유로화 약세, ECB의 양적완화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나 그리스 채무불이행 등 하방리스크 상존
  - 일본경제는 엔화약세 등에 힘입은 수출증가,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
  - 중국경제는 생산 및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

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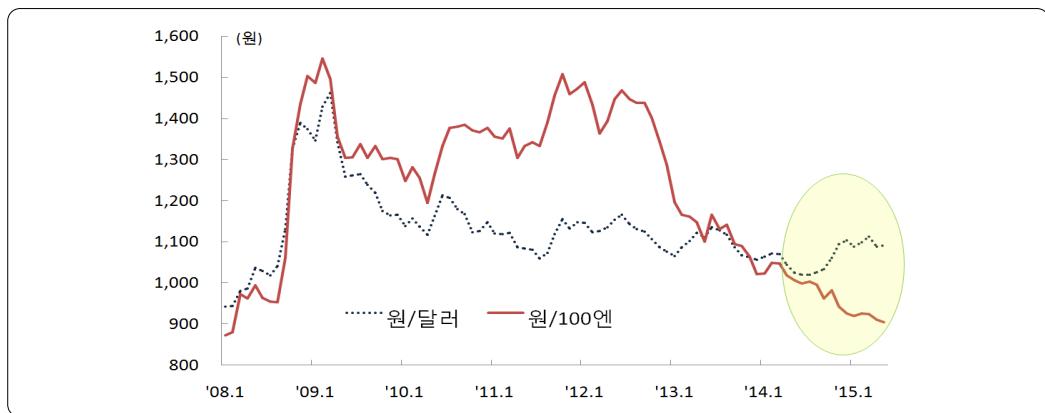
	세계	선진국	신흥국	미국	유로지역	일본	중국
2014	3.4	1.8	4.6	2.4	0.9	△0.1	7.4
2015	3.5	2.4	4.3	3.1	1.5	1.0	6.8

자료 : IMF, World Economic Outlook, 2015.4

### ▶ 원/달러 및 원/엔 환율은 변동성 확대 전망

- '15년 원/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등으로 연평균 1,090원 예상
  - 하락요인 : 경상수지 흑자 지속,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가
  - 상승요인 :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,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대외 불안정성 증가
- '15년 원/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지속 등으로 연평균 100엔당 900원 예상
  -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원화 및 엔화 모두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일 전망이나, 원/달러와 엔/달러 상승속도 차이 등으로 원화대비 엔화의 약세기조 지속 전망

원/달러 및 원/100엔 환율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### ▶ 국제유가는 공급 축소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 전망

- 유가는 달러화 강세, 생산 및 재고 증가 등으로 금년 초까지 가파른 하락세 지속
- 향후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량 감소, 미국의 원유공급 축소, 주요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
  - '15년 중 유가는 연평균 50~60달러 수준 전망

- 다만,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, 경제제재조치 해제에 따른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등은 유가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가능

세계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

(단위 : US\$/배럴)

기관	유종	'14년	'15년				
			1Q	2Q	3Q	4Q	연간
EIA <sup>3)</sup>	WTI	93.3	48.6	47.7	53.0	60.7	52.5
	Brent	99.0	53.9	56.3	59.9	67.0	59.3

주 : 미 에너지정보청(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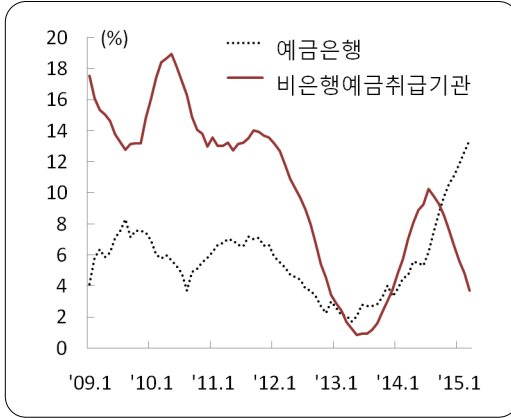
자료 : EIA, Short-Term Energy and Summer Fuels Outlook, 2015,4

▶ 가계부채는 '15년에도 내수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

- 규제완화 및 저금리 기조 등으로 가계부채 확대 전망
  - 국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채규모가 '13년에 이미 1,000조원을 초과
    - 가계부채 규모(조원) : ('12)964 → ('13)1,021 → ('14)1,088 → ('15.3월말)1,099
  - '14년 8월 LTV, DTI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예상
    -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은 은행권 LTV, DTI 제약으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대
-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는 금융불안 및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우려
  - 지난 10년간('05~'14년)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.9%인 반면,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8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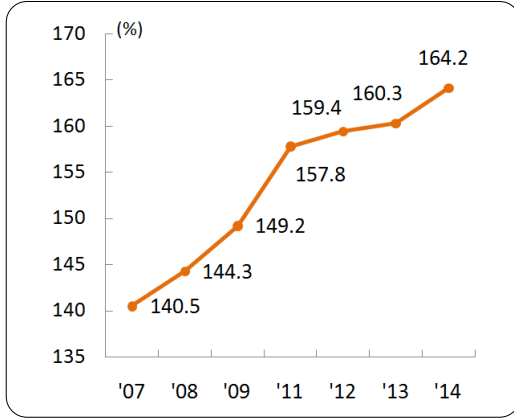


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추이



주 : 전년동월대비  
자료 : 한국은행

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### ▶ 재정정책은 확장기조 예상

- '15년 재정지출<sup>1)</sup>은 전년대비 5.5% 증가한 375.4조원 전망
  -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
    - 재정지출 규모(조원) : ('13)349.0→('14)355.8→('15<sup>e</sup>)375.4
    - 관리재정수지(GDP대비, %) : ('13)△1.5→('14)△2.0→('15<sup>e</sup>)△2.1
  -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
    -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'15년 3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90.2조원으로 연간 계획(313.3조원) 대비 28.8% 수준<sup>2)</sup>
  - 소비·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중점 추진
    - 일자리, 중소기업 정책금융, 지역경제 활성화, R&D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,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도 집중 지원할 계획

1)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기준

2)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는 59%

### Ⅲ 2015년 국내경제 전망

▶ '15년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3.5%, 연간 3.1% 전망

-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 성장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나, 소비 및 투자심리의 더딘 회복 등으로 경기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  - 민간소비,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, 세계경기 회복 및 교역량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으로 하반기 중 수출의 감소폭도 축소될 전망
  - 다만,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·투자심리의 더딘 회복, 중국경제 성장세 위축, 엔화약세,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은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
- 상기 제약요인 및 미약한 내수회복세 등 하방리스크를 감안, '15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.8%('14.11월 전망) 대비 0.7%p 하향 조정

2015년 국내경제 전망

(단위 : 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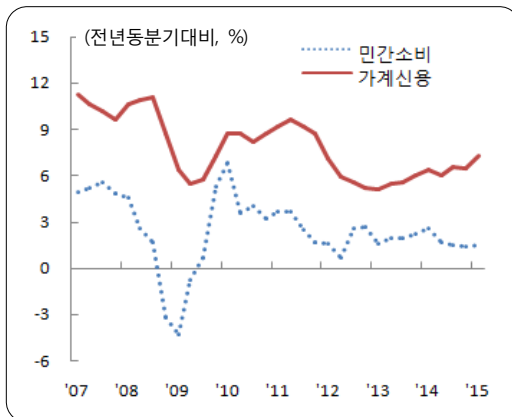
	2013	2014	2015 <sup>e</sup>		
			상반기	하반기	연간
국 내 총 생 산	2.9	3.3	2.8	3.5	3.1
민 간 소 비	1.9	1.8	2.2	2.6	2.4
설 비 투 자	△0.8	5.8	5.9	6.6	6.2
건 설 투 자	5.5	1.0	3.2	3.8	3.5
경 상 수 지 (억 달러)	811	892	495	475	970
수 출	2.1	2.3	△3.2	△0.2	△1.7
수 입	△0.8	1.9	△11.7	△1.2	△6.5
소 비 자 물 가	1.3	1.3	0.7	1.3	1.0
실 업 륜	3.1	3.5	3.9	3.3	3.6

주 : 1) 수출과 수입은 통관기준임  
 2) 2015년은 산업은행 전망치임  
 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## ▶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예상되나, 회복의 강도는 미약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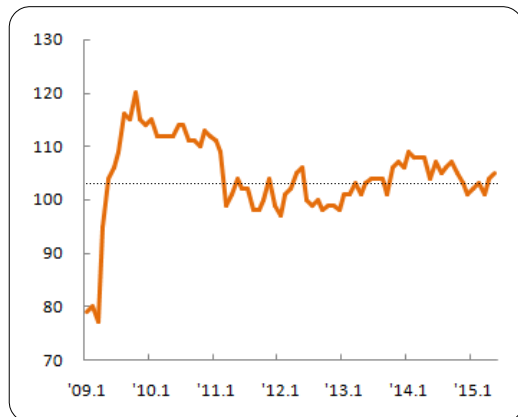
- 민간소비는 하반기 2.6%, 연간 2.4% 증가 전망
  - 낮은 물가상승세 및 저유가 지속,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 구매력 확대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   - '15년 정부의 복지분야 예산 확대('14년 대비 8.7% 증액된 115.7조원) 역시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가계부채 부담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,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GDP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
  - 민간소비는 GDP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요소로서, 민간소비의 미약한 회복은 '15년 경제성장의 주요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
    - 소비자심리지수<sup>3)</sup>는 '10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 가운데 '14년 상반기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, '14년 하반기 이후 다시 하락하는 등 회복세가 미약

가계부채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소비자심리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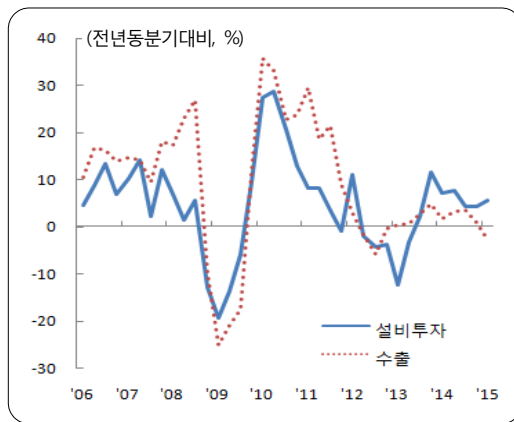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3) 소비자심리지수는 '03년~'14년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며, 100보다 크면 낙관적,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

▶ 설비투자는 건조한 회복세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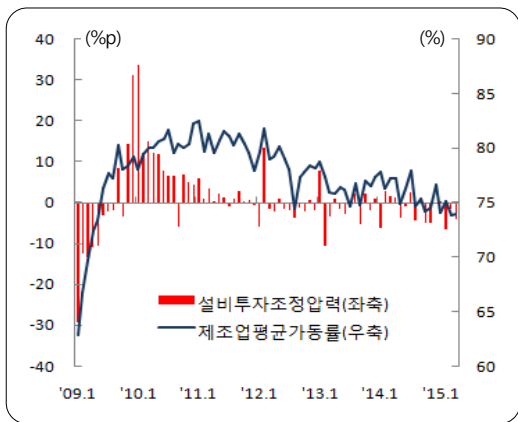
- 설비투자는 하반기 6.6%, 연간 6.2% 증가 전망
  -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 가운데 저금리 및 저유가에 따른 투자비용 절감 등에 힘입어 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
    -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(30조원)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(1.4조원) 등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도 설비투자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
  - 다만,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, 더딘 투자심리 회복, 제조업 유희설비 상존 등은 설비투자의 제약요인이 될 전망
    -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을 나타내는 설비투자조정압력<sup>4)</sup>은 마이너스(-) 상태이며,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 지속
- 업종별로는 스마트폰 및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IT부문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, 비IT부문은 저유가 등에 따른 자동차, 항공운수,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가 예상

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, 무역협회

설비투자조정압력 및 가동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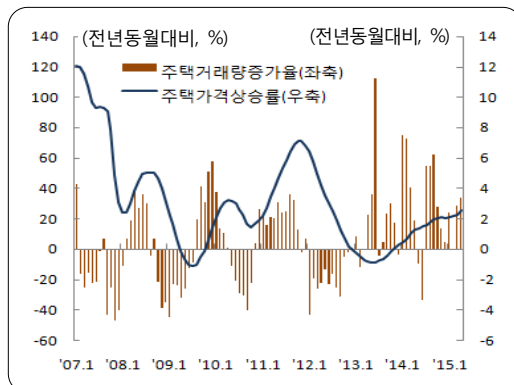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4)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제조업 생산능력증가율의 차이로서, (+)의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

## ▶ 건설투자는 증가세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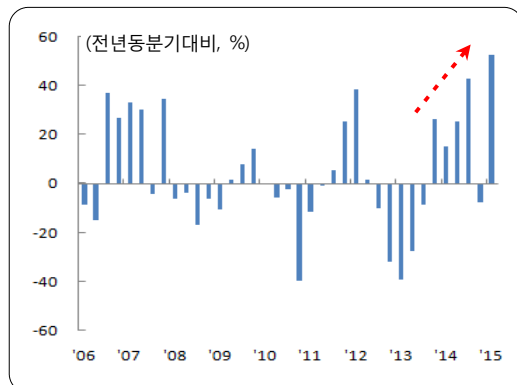
- 건설투자는 하반기 3.8%, 연간 3.5% 증가 전망
  - 주택시장 여건 개선과 SOC 투자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
    -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택매수심리 확산, 저금리 및 재건축·재개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의 회복세 지속
    - 안전시설 건설·보완 등 안전투자 확대,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등도 건설수주 증가 및 건설투자 활성화에 기여
- 다만,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, 정부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SOC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, 향후 단기간 내에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  - 주택시장이 점차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, 주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 감소 등으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주택투자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  -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SOC 관련 향후 5년간 재원배분 방향을 '재정투자 내실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'로 설정<sup>5)</sup>

주택거래량 및 주택가격 추이



자료 : 국토교통부, 국민은행

건설수주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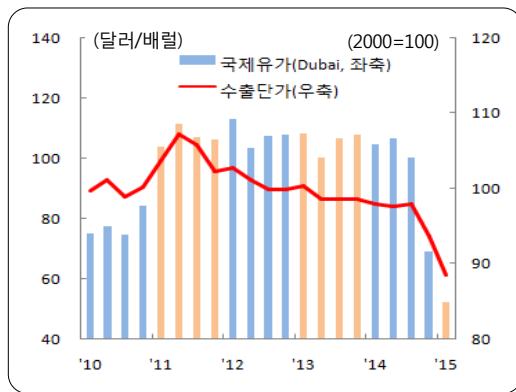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5) 기획재정부, 「2015 국가재정전략회의」 주요 내용, 보도자료, 2015.5.13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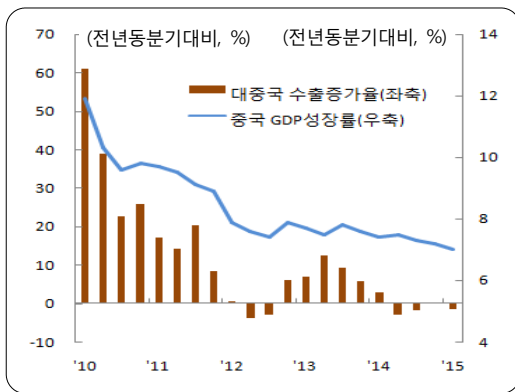
▶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 전망

- 수출은 하반기 0.2% 감소, 연간으로는 1.7% 감소 전망
  - 수출단가 하락, 중국경제의 성장세 위축 및 엔화약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    - 저유가 등에 따른 수출단가의 큰 폭 하락 가운데,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
    - 특히, 대중국 수출은 중국경제 둔화 및 내수중심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가공무역 억제 등의 영향으로 지속 위축될 우려
  - 다만, 금년 중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가운데 교역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 하반기에는 수출 감소폭이 상반기 대비 축소될 전망
    - 세계교역량 증가율(IMF, %) : ('13) 3.5 → ('14) 3.4 → ('15) 3.7 → ('16) 4.7
    - 엔화약세 지속,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경제·금융 불안 가능성 등은 하반기 수출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예상

유가 및 수출단가 추이



중국경제 및 대중국 수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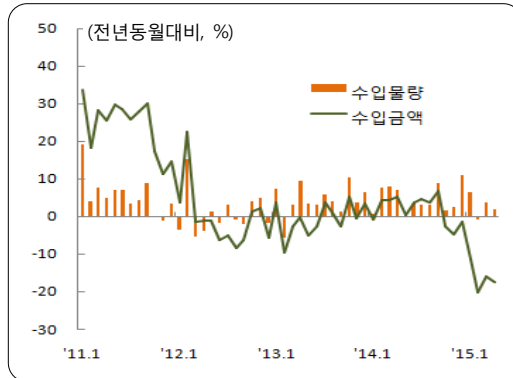


주 : 수출단가 = 수출금액지수 / 수출물량지수  
 자료 : 한국은행

자료 : 무역협회, 국제금융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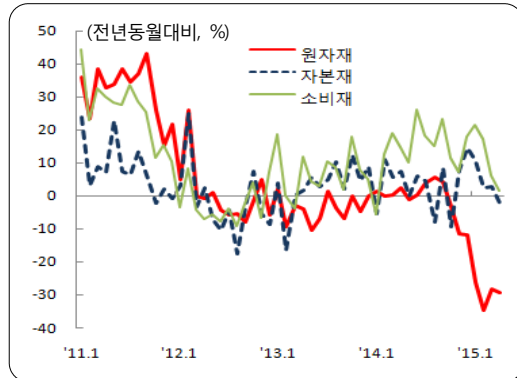
- 수입은 하반기 1.2% 감소, 연간으로는 6.5% 감소 전망
  -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수입은 상반기에 이어 감소세 지속 예상
  - 다만, 내수의 완만한 개선과 수출감소세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
- 완만한 소비회복과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수입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 감소에 따라 전체 수입은 감소할 전망

수입증가율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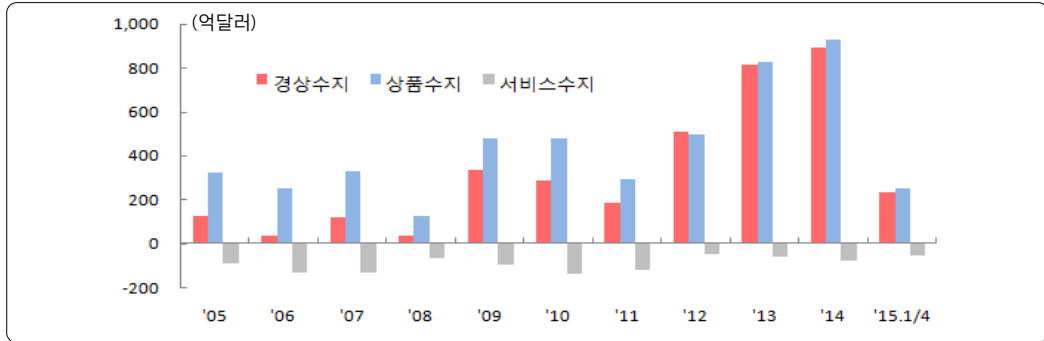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### ▶ 경상수지는 흑자 지속 전망

-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확대된 970억 달러 예상
  - 저유가 등에 기인한 수입감소세 지속 가운데 세계경기 회복 및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확대될 전망
  - 서비스수지는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 및 외국인 국내관광 감소, 해외 사업서비스<sup>6)</sup> 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적자 지속 예상

6) 사업서비스란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업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, 법률·회계, 컨설팅, 마케팅, 디자인, R&D, 정보처리·S/W개발 등의 서비스를 의미

경상수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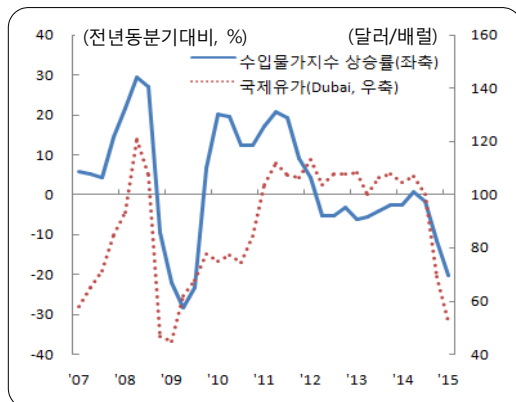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▶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지속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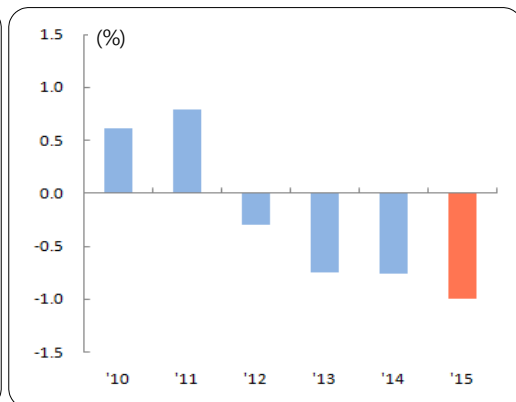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1.3%, 연간으로는 1.0% 상승 전망
  - 하반기 물가는 완만한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상승세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연간으로는 전년(1.3%)에 비해 상승세 둔화 전망
  - 저유가 등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,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 약화 등이 물가안정세에 기여
-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GDP갭은 마이너스(-) 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며,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 유지 예상

수입물가 및 국제유가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GDP갭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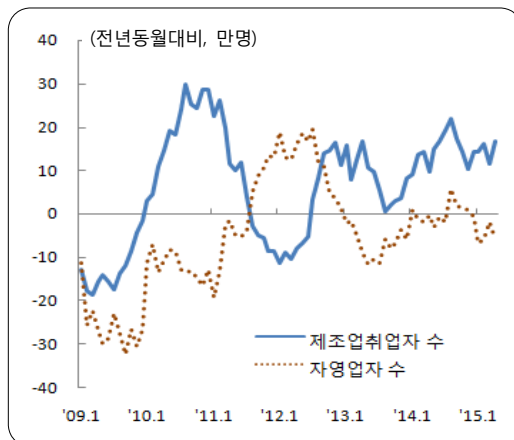
자료 : 산업은행



## ▶ 고용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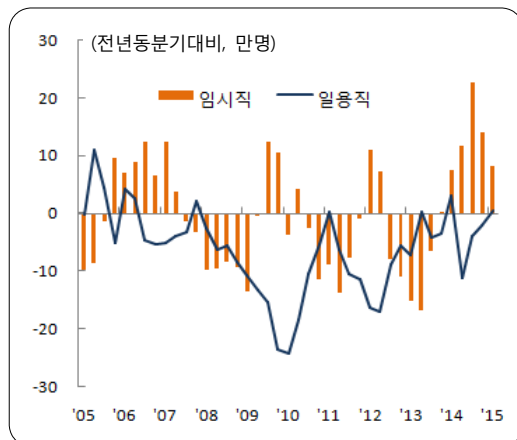
- 실업률은 하반기 3.3%, 연간 3.6% 전망
  - 완만한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하반기 실업률은 상반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,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증대 및 자영업자 감소 등으로 연간으로는 전년(3.5%)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
  - 청년·여성고용 활성화, 시간제일자리 창출,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입어 여성 및 청·노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
  - 자영업자 수는 더딘 내수회복 및 업종내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
- 취업자 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, 건설업 등에서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전망
  - 반면, 수출부진 및 내수의 더딘 회복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### 제조업 취업자 및 자영업자 증감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### 임시직·일용직 근로자 증감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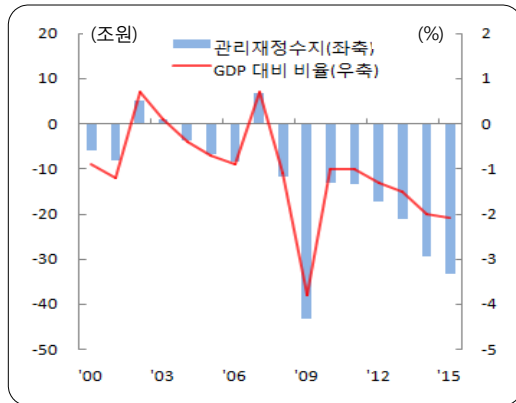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## IV 시사점

### ▶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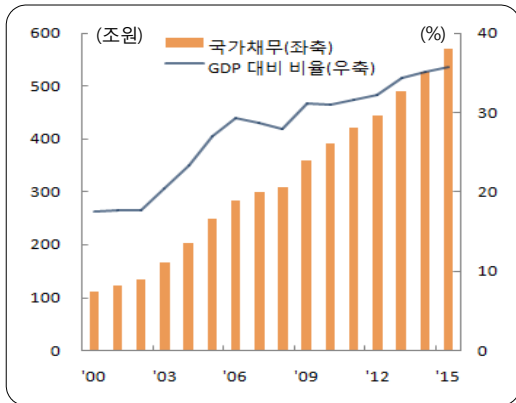
- (재정정책)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되,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유의
  -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책대 기초를 유지하고, 예산집행시기의 적절한 조절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
    - 금년 중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므로,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향후 경기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검토
  - 다만, 재정적자 증가 등 우호적이지 않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

재정수지 추이



주 : '15년은 예산안에 따른 정부 전망치임  
자료 : 기획재정부

국가채무 추이



주 : '15년은 예산안에 따른 정부 전망치임  
자료 : 기획재정부

- (통화정책) 경기회복 지원과 물가안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  -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을 위한 완화적 기초를 유지하되,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고 원활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

-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의 최소화에도 노력할 필요
- 또한 금년 중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예상됨에 따라,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수요 측면의 물가 하방압력 확대에도 유의하여 대응

### ▶ 대외적 충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

-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인상에 기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및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유의
  -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위축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증가 등이 발생할 우려
    - 신흥국은 금년 중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이 상존함에 따라, 미국 금리인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시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
- 미국 금리인상에 기인한 환율변동 및 금융시장 불안, 엔화약세 심화 등이 국내경제의 하방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할 필요
  - 미국 금리인상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및 환율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
  - 엔화약세 지속에 대비하여 품질개선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, 내수확대 및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대외의존도 축소 등에 노력

### ▶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 강화

- 더딘 경기회복으로 상환능력 개선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지속적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상존
  - ‘안심전환대출’ 시행(’15.2월)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가계부채 구조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
    - 고정금리대출 비중(%) : (’11) 3.1 → (’13) 15.9 → (’14) 23.6
    - 비저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(%) : (’11) 7.7 → (’13) 18.7 → (’14) 26.5

- 다만, 부채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채규모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, 향후 구조개선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
  - 가계신용 증가율(%) : ('12) 5.2 → ('13) 6.0 → ('14) 6.5
- 또한 부채규모에 대한 관리와 아울러,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한 근로자 소득 증대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제고 추진